

# 원희룡 장관, 태풍 피해 현황 및 대처상황 실시간 점검 “국민안전 최우선… 총력 대응” 강조 - 6일 상황총괄회의 열고 국토교통 분야 피해 및 대처상황 점검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6일(화) 오전 7시 30분 세종청사에서 제11호 태풍 ‘힌남노’ 관련 상황총괄회의를 개최하여, 태풍 대처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한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 원 장관의 주재로 열린 이번 점검회의에는 국토부 비상안전기획관을 비롯하여 도로·철도·항공반 과장, 주거복지지원과장, 건설안전과장 등이 참석하여 분야별 피해 및 대처상황을 공유하고 점검하였다.
- 원 장관은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완전히 빠져 나갈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도로, 철도, 항공 등 국토교통 분야 전반에 걸쳐서 철저하게 살피고 대비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목표로 삼고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다.
  - 국토부는 강풍 발생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해상교량 11개소에 대해 긴급 통행제한 조치를 실시하였고, 원 장관은 통행제한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전광판, 홈페이지, 재난방송 등으로 신속히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것을 지시하였다.
- 아울러, 강풍, 강우 등 태풍 피해 우려가 많은 도로 비탈면, 지하철도,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해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피해 발생 시 교통 통제 및 응급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요청하였다.
- 철도 분야는 태풍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11개 노선의 열차운행 계획을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철도공사·SR 등 2,400여 명이 재해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중으로

\* 고속·일반열차 총 785회 중 354회 운행 조정(45%)

- 원 장관은 “운행 중인 열차도 풍속·강우량을 감안하여 서행 등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운행을 중단한 위험구간 운행 재개 시에는 사전에 선로를 면밀히 점검해 줄 것” 을 주문하였다.
- 항공 분야는 9월 6일 출발편 기준 총 251편(제주 98, 김포 62, 김해 43 등)의 항공편의 운항계획이 사전 취소되었으나, 태풍 등의 영향으로 추가적인 결항 조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용객들은 항공기 운항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공항으로 출발할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기상상황이 호전 되는대로 신속하게 항공기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필요 시 임시편 추가 투입하는 등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침수피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에 대비하여 가용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히 확보하여 지자체에 안내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거지원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피해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 등 철저히 안전조치 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조속한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태풍대비 철야 근무를 하며, 국토교통 분야별 피해 현황과 대처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본부는 물론 소속·산하기관 관계자 모두가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총력 대응하고 있다.

2022. 9. 6.

국토교통부 대변인